

새마을의 열매

Issue 141 \ January 2019
01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한파 이긴 온정의 힘

엄정태 · 엄재문父子 아너 부전자전 나눔의 길





안부

보람아, 우진이는 잘 크고 있지?

사랑을 듬뿍 주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우진이는 참 복이 많구나 싶다.

대학 시절 사회복지 실습에서 만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있었어.

왜소한 체격에 항상 같은 옷, 머리도 덩수룩했지.

한 달 동안의 실습이 끝나던 무렵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집에 놀러가도 되겠냐고 했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

작은 주택 쪽문의 반지하 집에선

수북한 빨랫감과 김치국물에 얼룩진 식탁이 반기더라.

맞벌이하는 부모님을 혼자 기다리는 게 이 아이의 일상이었어.

선생님이 왔으니 빵을 사주겠다는 거야, 빵 살 수 있는 카드가 있대.

학교 급식을 먹지 못할 경우 밖에서 사 먹는 끼니에 보조금을 주는 아동급식 카드였어.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동네 빵집에 들어섰는데 그때부터 여기저기 눈치를 보더라.

당당하게 골라서 사 먹으면 되는데, 내가 옆에 있는데도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쭈뼛거렸지.

작은 아이가 왜 그 카드로 빵을 사는 게 떳떳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누군가에게 놀림을 받았을까, 누가 눈치를 주었을까. 그런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미어졌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모든 아이에게 결식, 학대, 방임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누구나 온기가 가득한 집에서 건강한 식사와

깨끗한 옷을 입고 사랑 듬뿍 받으며 자라면 좋을 텐데.

얼마 전 우진이 돌 때 가보지 못해 미안하다는 편지를 쓴다며 이렇게 내 얘기만 잔뜩 했구나.

육아에 지치고 힘들겠지만 항상 건강 챙기길 바란다. 곧 얼굴 보자.

목차



08



First Person

부전자전 나눔의 길 엄정태·엄재문父子

12



First News

대통령과 4부 요인에게 사랑의 열매 전달

14



기획

눈발으로 떠나는 감성 글램핑·신나는 스키캠프

16



현장

- ① 박수홍 홍보대사, 발달장애인들과 특별한 하루
- ② '빈곤의 대물림, 어떻게 끊을 것인가' 토론회

18



포커스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 날개 달다

20



이슈

스타들의 훈훈한 기부 릴레이

22



포토뉴스

- ① 대학생 기자단 열매톡톡 3기 해단식
- ② 롯데 손아섭, 사랑의 골든글러브 수상

24



착한기업

아시아나항공

30



화제

나눔 전도사들이 2030에 전하는 위로와 격려



Cover

경제 한파로 제조업 경기가
특히 어렵지만
엄정태 아너(오른쪽)와 아들
엄재문씨는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





32

착한일터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34

착한 가게가 있는 풍경
강원 속초

38

희망스토리
기쁘다! 마을축제 오셨네

40

Alive CCK(Community Chest of Korea)
광주 사랑의열매

44

나눔 리포트
나눔 확산에 유용한 빅데이터 분석

46

사랑의열매 뉴스
중앙회·전국 17개 지역별 소식

56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58

독자 페이지



사랑의열매 vol. 141 2019 / 1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19년 1월 / 통권 141호
발행처 사랑의열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9 사랑의열매 회관 5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대외홍보본부
구독안내 tel 02-6262-3000 fax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편집디자인 조선뉴스프레스 tel 02-724-6783
인쇄 (주)타라TPS tel 031-939-2049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자료는 사랑의열매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하며,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첫! 사랑의열매 시작한다!

어리니까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소액기부부터 나눔 활동까지,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요.

당신,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포털에 **사랑의열매** 검색하고
당신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홈페이지 www.chest.or.kr

20년의 사랑!

어렵던 시절,
사랑의열매 장학금으로
다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보내준 당신처럼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받은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사랑은 그렇게 계속됩니다.

*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배우 채수빈님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랑의열매 검색하고
20주년 폴스토리를 확인하세요!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경기 부자(父子) 아너 2호 **엄정태·엄재문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눠 걷는 길

온종일 공장에서 기계와 씨름하며 흘려온 수많은 땀방울. 그리고 성공. 엄정태 삼일공업사 대표는 그 행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았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계이 나눔을 시작했다. 이제는 아버지가 걸어온 삶과 나눔의 길 위에 아들 엄재문씨가 함께 서 있다. 같은 길을 걸으며 서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부자의 모습이 더없이 아름다워 보였다.

지난 12월 12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에 위치한 삼일공업사를 찾았다. 공장들이 오밀조밀하게 밀집해 있는 좁은 골목의 한 공장 입구에 손때 묻은 오래된 나무 현판이 붙어 있었다. 공장 안은 쇠붙이끼리 부딪히고, 잘라내는 소리로 가득했다.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기계를 다루느라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엄정태(59), 엄재문(27) 아너 부자를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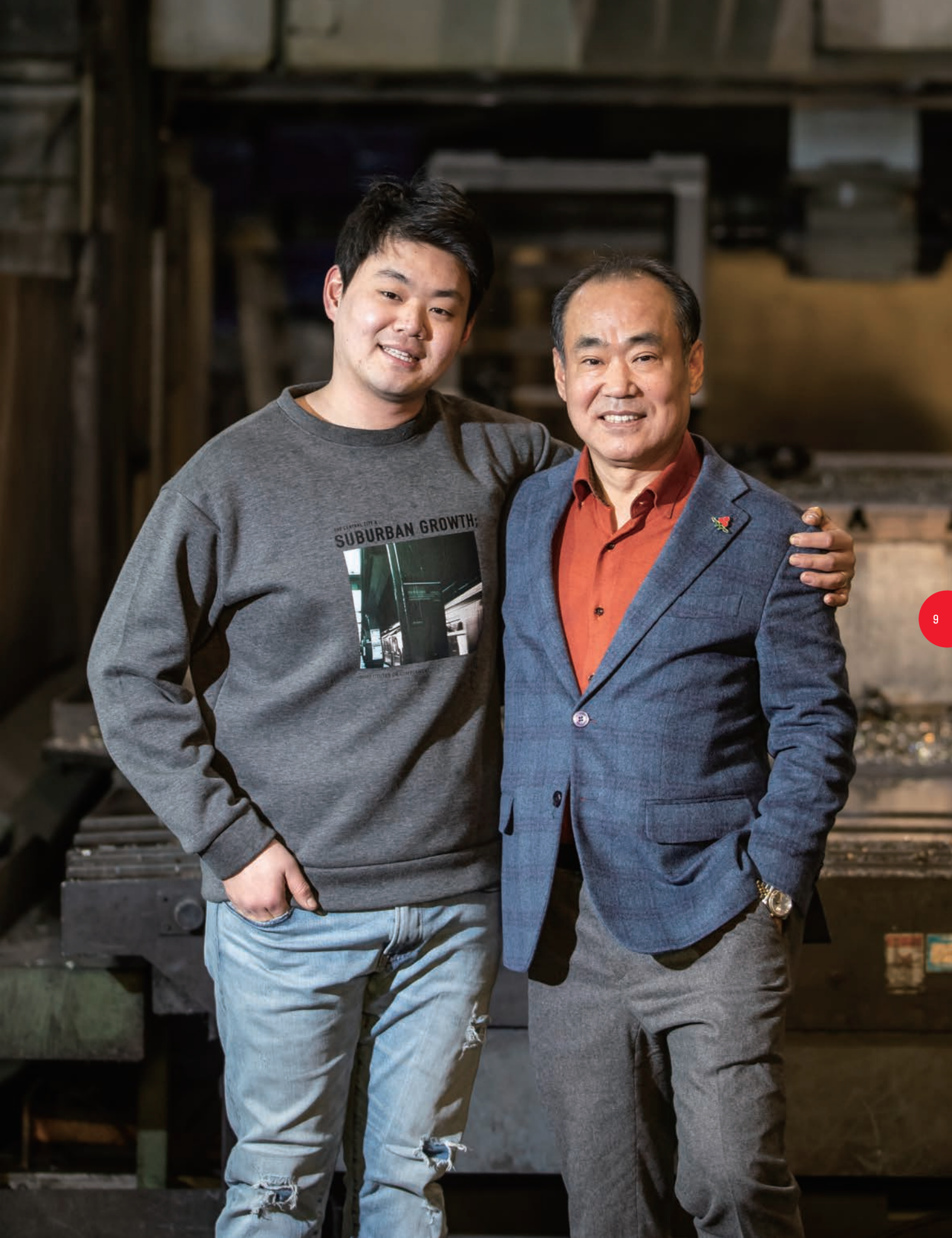


아버지 엄정태 아너, 30년 한결같이 이웃에 도움

“남을 돕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돕기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 지역과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 주민을 상대로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으니까요. 일 부라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자연스럽게 나눔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엄정태 대표에게 나눔은 30년을 함께한 삶의 동반자다. 엄 대표는 수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약정 금액을 떼어 놓는다. 자신의 사정으로 후원을 못하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이 힘들어질 것을 걱정해서다. 남는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삶을 돌보기 위한 마음 나눔인 셈이다.

처음 10만 원으로 시작한 기부는 30년 세월이 흐른 현재 매월 300만 원이라는 큰 나눔으로 성장했다.



THE CENTRAL CITY &
SUBURBAN GROWTH



PHOTOGRAPH BY [unreadable]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와 지난 4년간의 오정동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활동을 통해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큰 나눔을 실천하며 부담스러운 점은 없었을까? 이에 대해 엄 대표는 “나눔을 한 덕분에 응원해 주는 분들과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며 “그 덕분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해 왔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나눌 수 있었다”고 웃으며 말한다.

10대 중반부터 취업 전선 뛰어들어 자수성가

엄정태 대표가 지난해 말까지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전한 누적 기부액만 1억 8,000만 원 이상이다. 그만큼 나눌 수 있는 여건이기에 기부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다.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면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일찍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을 법한데도, 그는 그 시절 누구나 다 겪었을 일이라고 담담히 말한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힘들다 생각한 적은 없었노라며.

1985년 25세의 청년은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며 번 400만 원에다 대출받은 400만 원을 더해 공업사를 차리고 젊은 사장님이 됐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각까지 직접 기계들과 씨름하며 엔지니어이자 오너로서 성실히 일했다. 뒤늦게 대학에도 진학해 못다 한 학구열도 불태웠다. 그렇게 바닥부터 차근차근 쌓아올린 노력의 결실들이 21명의 직원이 함께하는 탄탄한 일터가 됐다. 의정부에서 요양병원과 장례식장도 운영하는 성공도 거뒀다.

기부는 사업이 안정되던 1990년에 처음 시작했다. 일단 시작해 보자는 마음으로 세계적인 기부단체에 매월 10만 원씩 이체했다. 자신으로 인해 웃는 사람이 생긴다는 뿌듯함과 즐거움을 그때 처음 알게 됐다. 기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기부가 지역에 보탬이 되고, 그 과정과 단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간간한 그의 기준에 합격점을 받은 것이 바로 사랑의열매였다.

받는 사람 자존심 건드리지 않고 도움 주기

엄정태 대표는 현재 사랑의열매를 통해 매월 세 종류의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과 다문화가족의 문맹퇴치를 위한 학습지 지원, 중·고등학생 10명의 장학금 지원, 부천 오정동공부방 아이들의 오케스트라 활동 지원으로 각각 100만 원씩을 기부한다.

“다른 단체를 보면 매년 수혜자를 바꿔가며 큰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고맙기는 하지만, 대상자가 처한 상황을 바꾸기란 쉽지 않죠. 저는 작은 금액이라도 대상을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장학금 지원을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면 학원에 다니거나, 학습지를 살 수 있어서 환경을 바꾸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되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도 그가 지키는 나눔의 철칙이다. ‘내가 줬으니까 이렇게 써야 해’ 하는 식의 태도도 금물. 이를 위해 수혜자들과 직접 만나기보다 담당 기관의 사회복지사나 동사무소 복지과 팀장을 통해 도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경과를 보고받고, 내용을 확인한다.

“연초에 한 번 정도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강제적인 게 아니라, 자유롭게 참석하는 자리예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나눔 의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에 나갔을 때 그 도움을 떠올리고 이웃을 위해 나눔을 되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재문 아녀 “아버지처럼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어요”

작년 5월에는 아들 엄재문씨가 아녀 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갖고 1억 원 약정 기부에 나서 ‘경기 부자(父子) 아녀 소사이어티 2호’가 탄생했다. 학생 때 오정동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아버지를 따라 봉사활동을 다니며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의 현실을 알게 된 것이 나눔의 계기가 됐다.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 댁에 연탄을 전하거나,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한기를 막기 위한 충전재 붙이기 등 봉사를 몇 번 나간 적이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좁은 원룸 같은 곳에서 외롭게 생활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죠. 할머니와 같이 살다 보니 마음에 더 걸렸던 거 같아요. 그때부터 기회가 되면 기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재문 아녀는 지난해 골프선수 생활을 접고 아버지의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작업복을 입고 늦은 시각까지 종일 일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아버지의 삶과 나눔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CMS로 기부하고 있는 아내와 딸도 언젠가는 아녀 소사이어티에 가입해 가족 모두가 나눔을 실천하는 아녀 패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베풀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

“연초에 한 번 정도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강제적인 게 아니라, 자유롭게 참석하는 자리예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나눔 의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에 나갔을 때 그 도움을 떠올리고 이웃을 위해 나눔을 되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4부 요인에게 사랑의 열매 전달

따뜻한 마음이 널리널리 퍼지다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의 옷깃에 빨간 사랑의 열매가 달렸다.
희망2019나눔캠페인이 진행 중인 지난 12월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에게 사랑의 열매가 전달됐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 '사랑의 열매' 배지 달고 행사장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7일 오후 사랑의열매를
비롯해 15개의 국내 기부·나눔 단체 대표와 홍보
대사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다. 이번 행
사는 매년 연말 사랑의열매에서 진행하는 사
랑의 열매 전달식을 확장해 연말연시에 이
웃을 돕는 나눔과 기부문화에 대한 관심
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청와대 관계
자는 "15개 기부·나눔 단체가 한꺼번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옷깃에
빨간 '사랑의 열매'를 달고 행사에 참
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 부부는
'Merry Christmas'라고 쓰인 장식품
을 걸어 크리스마스트리를 완성하고
사랑의열매 등 각 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환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오늘 행
사가 모금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28일 오전 의장
김무실에서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과 김연
순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19나눔



청와대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연말 기부나눔단체 초청행사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캠페인 사랑의 열매 전달식을 가졌다. 문 국회의장은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은 후 “자발적 기부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럿이 함께할수록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며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말했다. 이후 문 의장은 사랑의열매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2월 11일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은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으로부터 이웃사랑의 상징인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성금을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달식에서 “연말을 맞아 많은 시민이 나눔을 실천하길 바란다”며 “희망2019나눔캠페인의 사랑의온도 100도 달성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과 김연순 사무총장으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았다. 이낙연 총리는 전달식에서 “우리 사회에 기부·나눔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방송, SN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젊은 세대들도 기부·나눔 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도 성금을 전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2월 4일 연말연시 범국민 이웃돕기 모금을 진행 중인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다. 유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으로부터 이웃사랑의 상징인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전했다. 유 소장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을 위해 많은 분의 나눔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박원순 서울시장도 열매 전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12월 13일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을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총정로 사옥에서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과 김연순 사무총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사랑의온도 100도를 달성해 국민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1월 22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윤영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에게 이웃사랑 성금을 전하며 ‘사랑의 열매 달기’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서울 사랑의열매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박원순 시장은 “사랑의온도 100도 달성을 위해 큰 성원과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윤영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기획

글 김태희 사진 신현중

눈밭으로 떠나는 감성 글램핑·신나는 스키캠프

손은 뽕뽕, 맘은 쿵쿵

1월 겨울방학 동안 취약계층 아동들은 더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된다. 학교 급식도 없으며 관리의 부재로 방치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런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정서 함양을 위한 사랑의열매 지원사업이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아동지원 사례를 소개한다.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모처럼 신나는 겨울여행에 나섰다. 추위에 뽀뽀 언 손과 발도 이들의 즐거움을 막을 수는 없었다. “우와 이렇게 큰 텐트는 생전 처음 봐요!”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동학사 글램핑장에 아이들의 외침이 울려 퍼진다. 까르르 까르르 웃으며 즐거워하는 건 아이들만이 아니다. 이들을 이끌고 짐을 챙기느라 바쁜 어른들도 들뜬 표정은 마찬가지. ‘가족과 함께 떠나는 감성캠핑-겨울연가’는 대전유원초등학교와 정림사회복지관이 함께해 온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8년 중점 프로그램인 ‘요리수업’을 마무리하는 종강파티 차원의 이벤트다.

부모님도 참여해 그동안 배운 요리 솜씨 발휘

저소득·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이 프로그램은 한 달에 한 번 학교와 복지관에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요리를 만들고 식사를 하며 평소엔 꺼내지 못했던 속내를 터놓은 자리다. 한 학부모는 “생업에 바빠 아이와 변변한 대화를 가질 시간이 없었다”며 “한 해 동안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아이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얘기한다. 초등학교 5학년 자유이는 “캠핑장의 커다란 텐트도, 엄마와 이렇게 놀러 온 것도 모든 것이 신나고 신기하다”고 수줍게 소감을 밝힌다.

사랑의열매와 한국마사회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날의 캠핑은 그간의 요리교실을 통해 친숙해진 레시피로 파티음식을 만들

공부 지도에서 하모니카 연주까지 또래통합프로그램 연중 운영 ‘효과’

경북 포항 다사랑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간에 부모의 지도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또래통합프로그램을 2018년 한해동안 운영했다. 국어, 수학, 영어, 한자를 교육하는 ‘기초학습지도’와 ‘독서논술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교육의 기회가 미비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 문제를 개선해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얻기도 했다. 특히 연주회를 목표로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은 ‘환상의 하모니카 정서지원프로그램’은 참여 아동들의 열띤 반응으로 아동지원사업의 새로운 표본이 되기도 했다.



어 캠프 파이어와 함께 저녁 만찬을 즐기는 순서로 이어졌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짐을 옮기고 식사를 만들며 텐트 속에서 야영을 하는 것을 모두 즐거워했다.

캠핑 이벤트를 기획한 정림사회복지관 이리나 팀장은 오늘의 캠핑이 아이와 부모의 유대를 더욱 가깝고 따뜻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원래는 학교나 복지관의 공간에서 이뤄졌던 행사를 글램핑장이란 특별한 장소에서 열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연의 숨결 속에서 뛰고 즐기며 엄마·아빠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 일이 아이들에겐 매우 의미 있는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평소 가기 힘든 스키 체험 통해 자신감도 얻어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와 경기도 베어스타운에서는 활기찬 청소년 스키행사가 펼쳐졌다. 12월 1일과 2일은 하이원리조트에서 그리고 12월 8일과 15일은 포천베어스타운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인천 YMCA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80명의 아동·청소년이 참여해 새하얀 설원에서의 낭만을 마음껏 즐겼다.

평소 스키장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정 등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은 눈 위를 내달리는 스키 체험을 통해 새로운 추억을 갖게 됐다. 더욱이 고급 레저 스포츠인 스키 체험을 통해 자신감과 자부심을 회복하며 새로운 꿈을 갖는 계기를 얻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인천 YMCA의 고완진 운영관리실장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스키를 접할 여건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포스코와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내 최상의 리조트 두 곳을 순회하며 4일에 걸쳐 스키 강습을 받게 돼 참가자 대부분이 스키 기분을 체득해 더 유익한 체험 행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행복해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이 행사를 좀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수홍 홍보대사, 발달장애인과 특별한 하루 같이 밥 먹고, 일하고, 추억 쌓고



“어제도 TV에서 봤는데, 정말 반가워요.”
 “감사합니다(하하). 그런데 이거 만드는 게 쉽지 않네요. 저 제대로 한 거 맞나요?”
 지난 12월 3일 강화도에 있는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우리마을 식구들은 아주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월요일에 겨울비까지 더해져 지루했을 하루가 오히려 더 활기차진 것. 바로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방송인 박수홍씨와 개인 기부자들, 김연순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을 비롯해 임직원까지 20여 명의 봉사팀과 함께 나눈 즐거운 시간 덕분이다.
 사랑의열매는 기부자들에게는 나눔 지원 현장의 체험을, 장애인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대한성공회가 운영하는 우리마을을 찾았다. 봉사단은 근로 의지와 역량을 가

진 발달장애인을 위해 설립된 직업재활시설과 작업장, 기숙사를 둘러보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후 점심 배식 봉사와 발달장애인과 함께 직업재활 훈련의 일환인 부품 조립을 하며 마음을 나눴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봉사에 참가한 조이라씨는 “발달장애인이 7세 이하 아이들의 지적 수준이라는 것, 티가 나지 않아 오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관심과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봉사 내내 발달장애인과 웃음으로 교감한 박수홍 홍보대사는 “식사와 작업을 함께해 보니 발달장애인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며 “장애인들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

가치 있는 나눔 토론회 청년니트(NEET)들이 꿈꿀 수 있도록



‘빈곤의 대물림, 어떻게 끊을 것인가’

빈곤의 대물림의 현상 중 하나인 청년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문제의 해답을 논의하고자 사랑의 열매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지난 12월 11일 한겨레신문사에서 ‘빈곤의 대물림, 어떻게 끊을 것인가’를 주제로 나눔 토론회를 열었다. 청년니트란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하거나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청년을 말한다.

발제자로 나선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기 니트를 청년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불평등, 노동시장 구조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불평등이 심하지 않았던 1990년대에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했지만, 불평등이 심해진 2000년대 이후로는 교육이 오히려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에서 본인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큰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009년에는 21%였지만 2017년에는 13.4%로 줄었다. 미래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도 같은 기간 35.9%에서 23.4%로 줄었다.

청년 니트를 지원하는 일은 불평등과 빈곤 대물림의 악순환을

끊는 일이다. 미국에선 ‘유스 빌드’(Youth Build)라는 사업을 통해 빈곤가정의 청년들에게 멘토링, 진로 탐색, 자격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여러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사랑의열매 ‘희망플랜 사업’ 성공모델로 제시

이날 토론회에서 박미희 사랑의열매 나눔연구소 연구팀장은 사랑의열매에서 2016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희망플랜’ 사업을 소개했다. 희망플랜 사업은 전국 11개 지역에서 14~24세 청년 1,147명을 대상으로 한다. 니트 상태에 빠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 지원, 진로 탐색 등 맞춤형 프로그램과 가족 캠프,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구직 의향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스스로 “꿈이 생겼다”고 말하는 청년도 늘어났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박 팀장은 “청년들이 니트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데까진 이르지 못했다. 민간 지원 사업은 규모의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이나 지방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교육·노동·복지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쏘카 창업자 김지만 대표, 사랑의열매에 10억 원 기부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 날개 달다

차량공유 스타트업 '쏘카'와 승차공유 스타트업 '플러스' 창업자인 김지만 제쿠먼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사랑의열매 초고액기부 프로그램인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에 가입하며 10억 원을 기부했다. 김 대표는 이번 기부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에 이어 2호 기부자로

김지만 제쿠먼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지난 12월 5일 사랑의열매에 10억 원 기부를 약속하며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 2호 기부자가 됐다. 이번 기부로 김 대표는 사랑의열매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의 1,960번째 회원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어렸을 때부터 김지만 대표는 '0'에서 '1'을 만드는 사람을 동경

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0'에서 '1'을 만드는 사람이 됐다. 국내 최초 차량 공유 스타트업 쏘카를 창업한 김지만 대표는 나눔에 투자해 희망을 만드는 일에도 동참하게 됐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을 방문한 김지만 대표는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에게 10억 원 기부를 약속하고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증서를 받았다. 김 대표가 가입한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DAF·Donor Advised Fund)은 재단 설립과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

김지만
제쿠먼인베스트먼트 대표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한 고액기부 프로그램이다. 올해 3월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50억 원을 기부하며 첫 포문을 연 데 이어 김지만 대표도 이에 동참해 본격적인 초고액기부의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제주도 아동·청소년 장학지원 및 정서지원에 사용

이번 김 대표의 기부금은 쏘카와 풀리스가 탄생한 제주도에 서 아동·청소년 장학지원 및 정서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 출신인 최정훈 한국고치협회 전문코치(KPC)가 지원사업에 참여해 함께 활동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이날 가입식에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부모님은 제가 사업 잘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하지 않으셨다. 사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오셨다. 그 기도가 이루어져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두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전 ‘왜 해야 하는가’가 중요했다. 늘 새로운 일을 준비할 때는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를 묻는다. ‘덕업일치’라는 말이 있다. 덕질이 직업이 되는 것이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덕업일치’에 전 한 글자를 더 넣고 싶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사회적 가치를 담아 ‘덕업일치’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은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은 재단 설립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운영비용이 들지 않아 더 많은 분에게 지원이 가능하다”며 “김지만 대표의 기부가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의 확대를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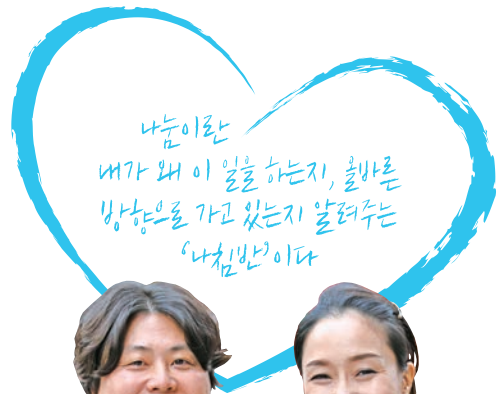
사랑의열매, 김 대표에 ‘김 대표 전신 피규어’ 선물

김 대표와 함께 행사에 참석한 아내 여진희씨는 “남편이 부탁을 했을 때 한번 거절하면 두 번 되묻지 않는 성격인데 이번엔 아내 가입식에 두 번이나 같이 가자고 해 그만큼 뜻깊은 자리 같아 거절할 수 없었다. 시부모님은 아들 사업 잘되길 바라는

기도는 하지 않으셨지만 전 많이 했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잘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제 기도가 빨리 이루어져 감사하다”고 말해 행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어 아내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서에 서명을 하고 나눔 메시지를 적는 순서가 왔다. 김지만 대표는 메시지로 “나눔이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다”라고 적었다. 가입식을 마친 후 사랑의열매는 김 대표의 전신 피규어를 기념품으로 선물했다.

한편,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은 사랑의열매가 기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기부자의 조언에 따라 지원사업을 펼치는 원금소진형 기금운영 방법이다. 공익재단에 기부된 성금을 금융사가 운용해 수익 등을 지원하는 기존 ‘기부자조언기금’에 비해 재원의 안정성이 높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며, 기부자가 직접 기금의 명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재 1호 가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우아한 영향력 선순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기부한 김지만 대표는 ‘제주먼 #만들어 기부기금’으로 이름 붙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슈

글 이일섭 사진 김중연, 조선일보 DB



전현무 아너 가입
이연복 착한가게
장근석 연탄봉사

스타들의 훈훈한 기부 이어달리기

연예인, 셀러브리티의 나눔은 늘 이미지 관리 차원의 행동이라는 지적이 가해지지만 이들의 기부 행렬에 그런 의심을 할 이유는 없다. 호흡이 가쁜 환우를 위해 거액의 치료비를 내놓거나 쌀과 연탄을 들고 쪽방촌의 이웃을 찾아가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그들의 마음엔 따뜻한 진심이 어려 있다.



이연복



장근석

방송인 전현무가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나눔 실천에도 그다운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난 11월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 서울 사랑의열매에 미혼모를 위한 기금 1억 원을 전한 그는 ‘이벤트가 아닌 일상이 되는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하며 아너 소사이어티의 역할을 강조했다. 방송인 전현무의 아이들 사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에는 한국심장재단을 통해 심장병 어린이 치료비 5,0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아동복지를 위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기부금과 구호 물품을 지원해 왔다.

전현무 “남을 도우니 내 자신이 더 행복해져”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12월 13일 아너 가입식에서 그는 이런 소감을 밝혔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분들께 보답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일을 시작했지만 그분들을 돕는 과정에서 저 자신이 더 행복해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너가 됨으로써 진정한 방송인이자 사회인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 세프 이연복도 자신의 중식당 ‘목란’에 착한가게 현판을 걸며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다운 ‘나눔’ 동참을 이어갔다. 홍보대사 위촉 한 달여 만에 착한가게 주인장이 된 소감을 그는 이렇게 전한다.

“수익금의 일정액을 매달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착한가게 시스템을 목란에 도입하면 나눔이 생활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사랑의열매의 얼굴인 홍보대사에 위촉된 만큼 제 일부인 목란에 착한가게 현판을 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목란의 담백하면서도 푸짐한 메뉴를 즐기는 일만으로도 소외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됐다. 늘 예약이 넘쳐 나서 짜장면 한 그릇, 군만두 한 접시 먹는 데에도 얼마간의 기다림이 필요했지만 그 불편함도 이제 나눔이란 소통 속에서 기쁨이 됐다.

방송인 유병재·유튜브 스타 썬님도 성금 전달

한류스타 장근석이 추운 겨울 쪽방 거주민들을 위해 연탄 1만 3,000장을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사회복지무원 신분상 참석을 못했지만 팬클럽 임원진이 참석해 을씨년스러운 영등포 쪽방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의 연탄 기부 뉴스는 한류스타답게 일본 열도 전역에 전해져 연탄에 대해 잘 모르는 일

본팬들에게 사용도를 설명하느라 관계자들이 애를 먹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겨울이 더 없이 외롭고 힘든 쪽방촌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그의 맞춤 기부는 장근석을 휴먼 스타로 인식하게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 걸그룹 AOA의 멤버인 가수 설현은 지난 12월 20일 저소득 청소년과 아동보육센터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며 아너 회원이 됐다. 설현의 아너 가입은 가수로는 6번째다. 설현은 앞서 11월 29일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5,000만 원을 기탁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아동보육센터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기부하며 완납 아너가 됐다. 설현은 “어린 친구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되면서 줄곧 마음이 쓰였다”며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이제야 작게나마 보답하는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광천 출신 개그맨 유병재는 지난 11월 26일 광천문예회관에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 고향 후배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충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하기도 했다. 유튜브 뷰티크리에이터 썬님은 이웃돕기 성금 1,100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며 지난 12월 28일 나눔리더가 됐다. 사랑의열매에서 진행한 토닥토닥 토크콘서트의 패널로 참여하며 인연을 맺은 썬님은 강연 도중 기부의 사를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

프로골퍼 신지애의 속 깊은 나눔

프로골프선수 신지애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지원하며 남은 유족을 격려하고 있다. 신지애는 지난 2016년부터 3년째 자살 유가족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며 부모를 잃은 청소년들의 앞



날을 염려해 왔다. 사랑의열매에 1,000만 원의 기금을 전하며 실의에 빠진 우리 이웃을 향해 그녀는 이런 격려의 말을 남겼다. “실직과 파산, 질병 등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더욱이 자살은 남은 가족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처가 되거든요. 고통과 비탄으로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낼 유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작은 성의에 힘입어 청소년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녀의 기부금은 자살예방센터의 선정을 통해 유가족 34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더 넓은 곳으로 뻗어나갈 여러분의 도약을 사랑의열매가 변함없이 응원합니다. 사랑의열매 대학생 기자단 열매톡톡 3기 해단식



대학생 기자단 열매톡톡 3기 해단식 나눔이 있는 곳은 어디든 ‘청춘불패’

지난 6개월간 사랑의열매 홍보를 위해 활동해 온 사랑의열매 대학생 기자단 열매톡톡 3기 해단식이

지난 12월 21일 사랑의열매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김연순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해단식은
기자단 활동 영상 시청과 활동소감 발표, 우수기자상 시상, 수료증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5명의 열매톡톡 3기 기자단은 지난 6월 8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진행된 MBC 1318 사랑의열매 캠프에
참여해 직접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웹툰과 동영상, 기사 등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8월에는 황기순과 박상민의 사랑더하기
거리모금에서 시민 참여 홍보 부스를 기획해 거리 홍보를 진행했고, 플래시몹 이벤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 11월 27일 열린 토닥토닥
토크콘서트 행사의 온라인 홍보를 위해 영상을 직접 기획하기도 했다. 이번에 활동한 3기 기자단 15명 중 최우수기자상은
장신대학교 김영미(22) 기자와 서울시립대학교 박선주(21) 기자가 수상했으며 우수기자상은 서강대학교 박소민(20),
경희대학교 박지은(20), 대구대학교 신효진(23) 기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롯데 손아섭, 사랑의 골든글러브 수상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

손아섭 롯데디자인츠 선수(외야수)가 사랑의열매와 KBO가 공동 시상하는 '2018 사랑의 골든글러브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2월 10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사랑의 골든글러브를 가슴에 안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손 선수는 “팬들의 과분한 사랑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사랑의 골든글러브는 야구를 잘해도 못 받는 상인 만큼 그 어떤 상보다 뜻깊다”고 말했다. 시상에 앞서 《사랑의열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롯데디자인츠 선배들의 나눔활동을 보면서 저도 능력이 되면 좋은 일에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어릴 때 힘들게 야구를 했지만 많은 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성장했듯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손아섭 선수는 지난해 4월 부산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이 밖에도 양정초, 개성중, 부산고 등 모교를 비롯해 부산 지역 야구부 후배들에게 2억 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지원했다. 손 선수는 앞으로 나눔 계획에 대해 “전국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야구부가 많기에 기회가 되면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드려 후배들이 야구선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선수,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일에 많이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

ASIANA AIRLINES

국내에서 해외에서 아름다운 나눔이 훨훨

고운 색동 날개만큼이나 아름다운 미소로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 아시아나항공의 아름다운 미소는 비행기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눔, 환경, 교실, 문화를 주축으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해외 아이들에게도 그 아름다운 미소와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시아나항공의 아름다운 비상을 소개한다.



금요일의 행복 나눔... 임직원 릴레이 봉사활동

아시아나항공의 사회공헌은 나눔, 환경, 교실, 문화 4대 테마가 주축이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참여와 모금 및 물품 기부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돕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문제해결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으로 해외 빈곤층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노력들도 함께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국내 사회공헌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직원 릴레이 봉사활동. 임직원들이 매주 금요일 복지기관을 찾아가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후 2018년까지 약 4,0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 약 2만 시간 동안 값진 땀방울을 흘렸다.

봉사 장소와 활동도 다양하다. 등촌4 종합복지관에서 직접 만든 빵을 홀어르신 가정에 배달하는가 하면, 등촌1 종합복지관에서는 어르신 급식 지원과 도시락 배달, 치매어르신 원예활동을 돕는다. 기쁜우리복지관에서는 지적장애인과 요리활동, 야외활동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며, 과인트리홈 보육원 아이들과는 함께 야외활동으로 온정을 나누고 있다. 또한 공항동 저소득가정 도배와 장판 등의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자신의 위치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눔을 실천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사회공헌 활동을 만나본다.



교육기부 프로그램

항공정비사·승무원체험교실 등
7년 연속 교육기부박람회 참여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인 교육기부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교육기부박람회에서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약 150여 개의 기업과 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기부행사다. 아시아나항공은 2012년 제 1회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참가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박람회에서 아시아나는 처음으로 단독 부스를 구성해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항공업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캐빈승무원 교육과정을 체험해 보는 ‘승무원체험교실 및 안전교실’, 항공정비사에 대한 꿈을 키워주는 ‘색동

창의STEAM교실’, 현직 아시아나 직원에게 항공 직업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육기부 봉사단 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구성해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박람회 기간 중 열린 ‘2018 교육기부대상’ 시상식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김민지 부서무장이 개인교육기부대상을 받았다. 2013년 발족된 아시아나항공 교육기부봉사단 소속으로 약 5년 동안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승무원 진로 특강을 80회 이상 실시한 경력을 인정받은 것. 김민지 부서무장은 “청소년들이 강연을 통해 조금이라도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강연을 통해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져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속 교육기부대상을 수상했으며, 2017-2018년에는 ‘명예의전당’에 헌액되었다.

현직 담당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직업 체험 가이드

아시아나항공 현직 직원들로 구성된 ‘교육기부봉사단’이 교육기부를 원하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 직업 강연을 실시하는 ‘색동나래교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2,373회 강연에 약 22만 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항공사 진로 탐색의 기회를 얻었다. 청소년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의 순수한 봉사활동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시아나항공은 쉽게 접하기 힘든 특별 체험 프로그램인 정비사 직업 체험 활동 ‘색동창의STEAM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6일 인천국제공항 제2격납고에서 현직 여성 정비사 김소연 기술사의 지도 아래 인천광역시 마전중학교 여학생 30여 명이 참가해 그 특별한 수업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K-Girls’ Day’ 행사 일환으로 여학생들에게 다양한 공학계열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해 이공계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 진학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항공기 정비가 이뤄지는 현장을 견학 후 체험 교실에서 모형 비행기 만들기 실습과 정비사 직업 강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체험했다. 이를 통해 항공기술과 관련된 과학 원리를 배우고 정비사 직업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서울시 저소득층 가정 학생 조식지원

2007년부터 따뜻한 아침밥 먹여주기
12년간 총 7억 6,000여만 원 지원

아시아나항공은 12년째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서울시내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수혜를 받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도시락이나 급식 형태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2007년 강서구와

양천구의 저소득가정의 초등학생을 위해 식사비를 지원하던 형태로 시작된 사업은 현재 서울시 교육청,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공동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수혜 학생도 크게 늘었다. 2015년 33개 학교 427명, 2016년 35개 학교 460명, 2017년 40개 학교 666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급여기금과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성금 1억 원을 마련해 서울시 강서, 남부, 동작/관악 지역까지 지원을 확장했다.



우즈베키스탄 아름다운 교실

타슈켄트 '244번 학교' 교실 리모델링
교육 기자재, 한국어 교재 무상 지원

중양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아름다운 교실'이 2018년 8월 28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의 '244번 학교'에 마련되었다. '아름다운 교실'은 아시아나항공 취항 도시 중 교육 환경이 열악한 현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기자재를 기부하는 아시아나항공의 대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지원은 사랑의열매를 통한 지정기탁 사업으로 국제

개발협력단체인 (사)프렌드아시아에서 진행했다.

'244번 학교'는 1,766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곳으로 구소련에서 독립하기 이전인 1973년에 설립되어 시설이 노후화된 학교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이들의 꿈이 자라날 아름다운 교실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내 직업교육 실습실의 바다과 벽, 창문의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 기부했다.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냉난방이 되지 않았던 교실이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변신했다. 그리고 재봉틀, 공작기계 등 실습 장비와 교육 기자재 등이 채워졌다.

한국어 교육 기관인 '타슈켄트 세종학당'에는 한국어 교재도 전달됐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활용될 책들로,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어 교재, 교육 자료 등 도서 800여 권의 화물 운송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베트남·캄보디아에도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아시아나항공은 이 외에도 베트남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교육 지원을 하는 베트남-아름다운 교실, 필리핀 자매결연 마을에 주거·생활 지원을 하는 '필리핀-아시아나빌리지' 등 다양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임직원 봉사단 17명은 아름다운 교실의 대표국인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수도 프놈펜에 위치한 '축봐 중고등학교'의

교실 및 화단 조성과 시설을 보수했다. 일일 교사로 6개 학급, 28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미술 등 다양한 특별활동 수업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컴퓨터 교실' 조성이다. 프놈펜 시내에서 학습용 컴퓨터를 보유한 학교는 손에 꼽히며, 그마저도 20년 이상 된 노후된 컴퓨터가 대부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컴퓨터 교실 구성에 필요한 PC, 책상, 의자, 빔 프로젝터 등 비품 일체를 지원하고 학생들이 양질의 IT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인도 아동 결연사업

개인 휴가낸 임직원 봉사단 학교 방문
같이 놀아주고 작업하고 멘토도 해주고

인도 뉴델리 북서쪽의 빈민층이 모여 사는 빨람지역의 유초등생을 위한 선한목자 학교 아이들은 4년 전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봉사단이 매년 꾸준히 학교를 방문해 학업환경 개선 봉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해외 봉사 활동은 개인 연차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3: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참여하는

임직원의 열의가 상당한 행사다.

지난해 11월 10일부터 4일간 마을을 찾은 아시아나항공 봉사단은 교실 장판을 교체하고, 페인트칠을 하며 학교 시설을 꼼꼼하게 보수했다. 흘린 땀방울만큼 학교는 더 깨끗해져 갔고, 봉사단과 아이들의 얼굴에는 갈수록 행복이 퍼져갔다.

학생들 대상 특별 수업도 큰 호응을 얻었다. 스노볼 만들기, 에코주머니 꾸미기 등 저·고학년 연령별 수준에 맞는 특별한 맞춤형 수업을 진행했다. 임직원 봉사단은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야외활동의 기회가 없는 학생들과 인근 놀이공원을 방문해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봉사단도 작년에 이어



2년째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와 구강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봉사 기간 중 인도 델리 대학교에서 인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전년에 이어 입상자들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대회 우승자 소라비(Sourabi·여·23세) 학생은 “인도에서 한류는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 같이 알게 되는 경험이 매우 뜻깊고, 앞으로 졸업 후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랑의열매와 함께 아동 100명과 아동결연 하기도

아시아나항공은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사랑밭’을 통해 이 지역의 아동 100명과 1:1 아동결연을 하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매년 1,700만 원을 들여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학교에 다니며 세균 감염이 빈번했던 아이들에게 학교에 다니는 데 필요한 동계 교복과 운동화부터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치약과 칫솔,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주 1회 특별 간식도 제공하고 있는 것. 비위생적인 환경 탓에 체구도 작고, 감기를 비롯한 각종 질병에 매우 취약했던 아이들. 그러나 위생용품 지원을 받은 이후 아이들의 면역력은 매우 좋아졌고, 건강 문제로 결석하는 아이들도 크게 줄었다. 중학교에 진학하는 수도 크게 늘었다. 교육의 기회 보장과 동시에 학업 상태도 매우 좋아진 덕분이다. 사랑의열매도 약 1,700만 원을 선한목자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유수프(13세)도 아동결연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 예전과는 달리 키가 많이 크고, 활발해진 것. 몸이 약해 학업도 소홀했던 아이는 건강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더 크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아시아나항공에서 일하고 싶은 꿈도 껴봅니다. 큰 선물 정말 고맙습니다.”

인도 빈민촌 아이들의 부푼 꿈이 하늘을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

토닥토닥

CHEER UP!

나눔 전도사들이 2030에 전하는 위로와 격려 “조급해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사랑의열매가 2030세대에게 전하는 나눔과 위로의 메시지 '토닥토닥 토크콘서트'가 지난 11월 27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화암홀에서 진행됐다. 그 화제의 현장을 다녀왔다.



사랑의열매 주최로 이화여고에서 토닥토닥 콘서트

N포세대라고 불리는 2030세대들에게 나눔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랑의열매가 아주 특별한 콘서트를 진행했다. 저녁이 어스름해지자 토닥토닥 토크콘서트가 열리는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화암홀에는 업무를 마치고 달려온 젊은 청년들로 북적였다. 이날 콘서트 티켓 수익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전액 기부됐다. 토크콘서트에 연사로 나온 하상욱 시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썸님, 이연복 셰프, 사회를 맡은 개그맨 박수홍씨는 모두 재능기부로 행사에 참여했다.

이연복 셰프, 박수홍 개그맨, 하상욱 시인 등이 출연

토크콘서트의 막이 오르고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박수홍씨가 등장하자 환호성이 터졌다. 토크콘서트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1부의 시작은 사이다 시인으로 유명한 하상욱 시인이 첫 연사로 등장했다.

“어떤 영화를 보고 단 댓글 하나에 폭풍 공감을 했어요. 그리 유명하거나 재밌는 영화도 아닌데 ‘너와 봐서 좋았다’는 댓글이 베스트가 됐죠. 이처럼 상황과 관계없이 때로는 감정에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연사는 유튜브 스타인 크리에이터 썸님이었다. 솔직하고 멋있는 언니 썸님은 열정 팬들이 많았다. 현장에서 썸님의 프로필을 줄줄 외우는 팬도 있었다.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무모해 보이지만 주저하지 않았던 도전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길 중에서

갈등하고 두려워했다면 내 길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을 위로한다기 보다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싶어요. ‘조급해하지 마. 시간은 많아’ ‘남들과 비교하지 마.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져’ ‘후회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내 시간이 의미 없이 흐르는 것 같아도 어딘가엔 쌓이고 있다. 불안해하지 말자.’

이날 썸님은 강연 중 사랑의열매를 통해 1,000만 원을 기부한다고 깜짝 발표를 해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1부 마지막 연사는 이연복 셰프였다.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토크콘서트



있는 이연복 세프는 기성세대로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경험담을 위트 있게 전했다.

“제가 어릴 때 참 어렵게 컸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손 내밀어 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제가 기부를 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의 저처럼 주위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어 그들이 희망을 얻어 내일을 살고 모두가 나눔으로 행복해지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남들을 상담하다가 내가 치유를 받은 것 같아”

이어 진행된 2부는 4명의 연사가 한자리에 모두 모여 이야기하는 시간 ‘한자리 토크’로 진행됐다. 사전에 SNS를 통해 받은 2030세대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는 자리였다. 예쁜 사랑의 나무에 걸린 사랑의열매 질문을 박수홍씨가 직접 골라 연사분들께 질문하면 그에 대해 답변을 하는 시간이었다. 이연복 세프에게 ‘중식의 대가로 성공하셨는데 스트레스가 쌓일 때 어떻게 해소하나’ 질문하자 그는 “핸드폰 게임을 한다”고 답해 폭소를 자아냈다. 그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며 “짜증나면 빨리 늙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인 관계가 어려울 때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하상욱 시인은 “안 맞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최고다”라며 “인간 관계로 힘든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좌절을 자주 느껴봤는데 극복되지 않더라. 좌절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토크콘서트 연사로 참여한 소감을 묻자 썸님은 “남들을 상담하다가 내가 치유를 받은 것 같다.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토크콘서트는 4명의 연사가 객석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행사를 기획한 사랑의열매 대외홍보본부는 “토크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사 섭외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SNS는 물론 지인 인맥까지 총동원해 섭외하는 과정에서 행사 스케줄이 미뤄지기도 했지만 천신만고 끝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썸님과 하상욱 시인을 섭외할 수 있었다”고 행사 뒷이야기를 전했다. 🍀



도움 절실한 환자들에게 인술은 기본, 나눔은 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프면 괴롭고 서러운 법.
하물며 치료비가 없어 병원도 가지 못한다면 이는 생의
가장 큰 고통이다.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임직원들은
병원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이 같은 환자들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따뜻한 마음을 모으고 있다.

첨단 건축물의 각축장이 된 세계적인 관광지 부산 해운
대에 지난 2010년 3월 개원한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
원. 해운대백병원 임직원들은 개원 1주년인 2011년부터
아주 특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사랑의열매와 손잡
고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을 환자 돕기 후원
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지역 내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환자 돕기 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가 있었습니다. 결국 개원 1주년을 기념해 당시 원장님
께서 ‘환자도 도와주고, 병원에도 기념될 만한 일을 만들
자’고 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사회사업실의 의료사회복지사인 정미란 실장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백병원 재단의 모든 후원은 '인당후원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인당은 설립자 인당(仁堂) 백낙환 선생의 호다. '인덕제세'라는 병원 창립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해운대 백병원 임직원들은 의료를 통한 봉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술제세' 백병원 창립이념 실천... 직원 473명 참여

이 같은 설립자의 이념이 백병원 재단의 문화에 면면히 흐르고 있어 해운대백병원 임직원들 역시 473명이라는, 총 직원의 3분의 1이 넘는 직원들이 사랑의열매 후원 제작에 사랑의 손길을 모으고 있다.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기부를 통해 해운대백병원 임직원들이 느끼는 보람과 기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부의 즐거움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바로 이곳이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최전선, 바로 병원이기 때문이다. 내가 낸 기부금이 바로 눈앞에 병원비가 없어 괴로워하는 환자에게 쓰여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는 현장을 직접 목도(目睹)할 수 있는 것이다.

김해유 신경외과 교수가 들려준 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처럼 병원이란 현장에서 느끼는 특수한 감정을 잘 보여준다.

"최근에 입 주변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70대 할머니가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가족들도 도와줄 만큼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사회사업실에 서류를 접수해 결국 할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수술하고 치료할 때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죠."



김 교수는 평소 돈이 없어서 제때 제대로 된 환경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사실상 치료 포기를 선택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안타깝다. 그런 만큼 사랑의열매를 통해 나의 기부가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일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남다른 희열이다.

가정 형편 안 좋은 환자들 연 40명 내외 지원

해운대백병원 임직원들이 7년간 모은 금액이 총 3억 352만 5,071원. 연평균 3,500만 원가량 된다. 이 같은 모금액을 바탕으로 해마다 40명 내외의 환자들을 지원한다. 임직원들은 봉사활동에도 열심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김해에 있는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직접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준다. 또한 후원금을 바탕으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해 지원하기도 한다. 병원이 있는 해운대 지역을 비롯해 인근 기장과 울산 지역 등지에서 의료봉사 또한 하고 있다.

"이런 의료봉사가 뜻깊은 것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 가지 못해 정확한 병명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 치료라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미란 실장은 도움을 받은 환자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올 때면 이를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원내 메일을 통해 공지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게 되고 전보다 적극적으로 모금에 임하니 그야말로 기부의 선순환이다. 백의(白衣)의 천사들이라 할 만하다. ❀

착한가게가 있는 풍경_강원 속초

글 사진 조혜원(여행작가)

싱싱한 해산물 뜨끈한 온천물

겨울 여행의 매력은 짙고 맑은 하늘, 풍성하고 맛 깊은 먹거리, 추운 날에 가면 더 좋은 온천까지 다양하다. 속초는 산, 바다, 호수가 모두 어우러져 볼거리, 먹거리가 넘친다. 알배기 도루묵과 양미리로 겨울을 시작해 뜨끈한 물곰탕이 뒤를 잇는다. 여기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천에 몸을 담그면 겨울 여행의 정점이다. 일출 보며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채우는 속초 여행길로 안내한다.



© 사진 속초시 제공

보라 동해의 떠오르는 일출

설악해맞이공원, 영금정 속초등대전망대, 조도, 청초호 등 속초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명소는 여러 곳이다. 새들이 많이 찾는 섬 조도는 새해 첫날이 되면 일출을 담으려고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모여든다. 인어연인상 뒤로 떠오르는 일출을 볼 수 있는 설악해맞이공원, 거친 동해의 파도를 아래 둔 영금정 등대전망대, 어느 해변에서 바라봐도 보일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까지 동쪽 끝 바닷가에서 보는 일출은 어디서든 아름답다.

바다 옆의 호수와 섬 청초호와 아바이마을

청초호는 영랑호와 함께 속초를 대표하는 호수로 둘레가 5km에 이르는 큰 자연 석호다. 호수를 둘러 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호수 한가운데에 청초정이 있다. 청초정에 서면 설악산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74m 높이의 엑스포타워가 보인다. 청초호수공원은 봄, 여름, 가을엔 꽃밭이 조성되고, 겨울엔 철새가 날아든다. 밤에 가도 조명으로 멋진 산책로가 펼쳐지고,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일출은 아니지만, 청초호를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일출을 보기에 좋은 장소다. 청초호에서 바다로 한 덩어리 떨어져 나간 듯한 작은 섬이 아바이마을이다. 지금이야 금강대교가 연결돼 쉽게 갈 수 있지만 예전엔 갯배를 타고 건너다녔다. <가을동화> 촬영지로 더 유명한 아바이마을은 정말 작은 마을이지만 속초의 맛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아바이마을은 한국전쟁 때 피란 내려온 함경도 사람들이 정착한 마을로, 아바이순대와 오징어순대를 파는 식당이 많다. 이제는 관광을 위한 이동수단이 된 갯배를 타고 아바이마을로 건너간다. 천천히 마을을 지나 바다 쪽으로 걸으면 작은 청호해수욕장도 나온다. 빨간 등대와 흰 등대, 눈부시게 하얀 백사장과 파란 바다는 겨울에도 멋지다.

미네랄이 살아 있는 척산온천휴양촌

온천은 역시 겨울이 제격이다. 머리는 맑고 몸은 뜨끈한 노천탕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 척산온천은 설악산 아래



바우지움 조각미술관

속초 노학동에 있는 온천이다. 1974년부터 온천업을 시작해 척산온천지구를 대표하는 현재의 척산온천휴양촌이 됐다. 척산온천휴양촌은 지하 4,000미터에서 솟는 약 53℃의 천연온천수를 사용한다. 땅에서 솟아온 온천수를 재가 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니 미네랄이 살아 있다.

척산온천휴양촌 인근에 척산죽옥공원도 있다. 온천욕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죽옥공원만 둘러도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다. 온천특화마을 조성을 위해 척산온천휴양촌 소유의 토지를 속초시에 무상으로 기증하고 온천수도 1일 30톤씩 무상 지원해 조성한 공원이다. 다만 죽옥공원은 매년 4~11월까지만 운영되니 한겨울엔 온몸을 온천수에 담글 수 있는 척산온천휴양촌으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설악산과 울산바위를 배경으로 한 **바우지움 조각미술관**

척산온천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바우지움 조각미술관은 주소는 고성이지만 속초여행 때 들르기 좋다. 바우지움은 현대 조각의 대중화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각가 김명숙이 건립한 사립미술관이다. 바우지움은 전체 9,900㎡ 부지에 총 3개의 전시관과 야외전시장이 있다.

바위를 뜻하는 '바우'와 박물관을 뜻하는 뮤지움의 합성어로 바우지움 미술관의

여행정보

청초호

- 주소 강원 속초시 엑스포로 140
- 문의 033-639-2690

아바이마을

- 주소 강원 속초시 청호로 122
- 문의 033-633-3171

척산온천휴양촌

- 주소 강원 속초시 관광로 327
- 문의 033-636-4000

바우지움 조각미술관

- 주소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온천3길 37
- 문의 033-632-6632
- 운영시간 매일 10:00~18:00, 월요일 휴무

문우당서림

- 주소 강원 속초시 중앙로 45
- 문의 033-635-8055

착한가게 합흥냉면옥

- 주소 강원 속초시 청초호반로 299
- 문의 033-633-2256



척산온천지구



문우당서림

건축은 아рки움의 김인철 건축가가 맡았다. 울산바위에서 넘어온 늙새바람과 동해에서 건너온 해풍이 돌담을 돌며 잠시 쉬어가게 해주고, 설악산과 울산바위를 풍경으로 들였다. 미술관에는 여체의 아름다운 선을 볼륨감과 리듬감으로 표현한 김명숙 관장의 작품과 김 관장이 수집해 온 조각가들의 작품 40여 점이 전시돼 있다. 입장권으로 입구 카페에서 커피 한 잔과 교환할 수 있으니 꼭 카페에 들러 향 좋은 커피도 한잔하며 쉬어가자.

시 낭송회·드로잉 수업 열리는 **문우당서림**

속초에는 유명한 동네서점이 몇 곳 있다. 3대를 이어온 '동아서점', 가족이 운영하는 '문우당서림', 북스테이를 할 수 있는 '완벽한 날들'. 모두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다. 서점에서 시 낭송회, 드로잉 수업, 음악회가 열리고 주민들이 모여 문화를 나눈다. 30년이 넘는 세월 서점을 운영하던 아버지의 노하우에 디자인을 전공한 딸이 감각을 더해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옆엔 283개의 책 속 좋은 글귀를 모아 전시했다. 일반서점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독립출판물도 한자리를 차지한다. 책을 정말 좋아하는 이의 감상평이 적힌 글귀가 책 표지에 붙어 있다. 책을 구매하면 원하는 문구가 적힌 봉투에 담아주는 세심함까지 더한다.



찰한가게 함흥냉면옥
이문규 대표

매콤달콤 코다리냉면으로 나누는 **찰한가게 함흥냉면옥**
1951년 시작돼 속초에서 가장 오래된 함흥냉면 집이자, 코다리를 냉면에 얹어 낸 최초의 가게다. 원래는 가자미를 쓰다가 참가자미 어획량이 줄어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코다리로 바꿨다. 고구마 전분을 써 쫄깃한 면발에 매콤달콤한 코다리를 쓱쓱 비벼 먹는다.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이곳에선 두 가지 육수가 나온다. 소 사골과 고기를 삶은 따뜻한 육수와 차가운 간장 육수. 우선 따뜻한 육수를 한잔 마셔 속을 풀고, 식초, 겨자, 설탕, 양념장을 취향대로 넣고 차가운 간장 육수도 입맛에 따라 조금 혹은 물냉면처럼 많이 넣는다. 그리고 냉면을 다 먹고 나면 빈 그릇에 뜨거운 육수를 부어 마시는 방식이다. 육수를 만들고, 코다리를 무치고, 면발을 반죽하고 배달도 직접 다니다 보니 식사 때가 아니어도 항상 바쁜 이문규 사장님. 지역 주민에게 받은 사랑과 관심을 사랑의열매를 통해서라도 보답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

기쁘다! 마을축제 오셨네♪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사건 사고로 많은 국민은 ‘혹시나 나도’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체 의식을 높여야 한다. 아이와 가정의 행복을 통해 건강한 지역을 꿈꾸는 서울 송파 솔바람복지센터 성탄마을축제를 찾았다.

서울 송파 솔바람복지센터 성탄마을축제

한낮에 영하를 오기는 쌀쌀한 날씨임에도 엄마 손을 잡은 아이들이 몰려온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아이들이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사이 부모들 역시 어느새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솔바람복지센터 입구에서 펼쳐진 이런 다정한 풍경을 뒤로하고 안으로 들어서자 그야말로 시끌벅적하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 넓게 깔아놓은 폭신한 매트 위에서 뛰며 웃고 떠드는 개구쟁이들, 산타 분장을 한 자원봉사자 옆에서 연신 인증샷을 찍는 아이와 찍어주는 엄마, 코끼리 코를 하고 열바퀴를 돈 후 지정해 놓은 물건을 집어오면 선물을 주는 행사장에서 아이, 엄마 할 것 없이 아주 신이 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직접 발 벗고 참여해 아이들과 함께 미니트리를 만들고 있다.

“매년 저희 복지센터에서 아이들과 작은 크리스마스 기념 행사를 진행했는데, 갈수록 참여 인원이 늘어 제대로 한 번 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이렇게 크게 일을 벌인 건 올해가 처음이지요. 다들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니 뿌듯합니다.” 솔바람복지센터 김지민 센터장은 쉽지 않은 준비 끝에 내놓은 프로그램 인데 참여와 만족 정도가 높아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솔바람복지센터가 자리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은 문화유적보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송파구 내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다소 낙후된 동네다. 센터가 소재한 풍납1동만 보더라도 2014년 1월 1만 8,504명이었던 주민 수가 2018년 9월 말 기준 1만 5,603명으로 4년 사이 2,901명(6.4%)이 줄었다. 그중 영아복지 대상자가 621명, 기초수급자 393명, 차상위한부모

252명 등 복지 대상자가 3,467명으로 이는 전체 지역 주민 중 22.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런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설립된 솔바람복지센터는 ‘아동을 중심으로 가족의 기능을 도와 지역복지를 실천한다’는 취지 아래 저소득가정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통합적 발달을 위한 심리정서, 인지, 교육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14일 지역 내 한부모,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다둥이가정 및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열린 ‘2018 솔바람복지센터 성탄마을축제’는 지난해까지는 저소득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소소한 발표회 형태로 진행했으나 일반가정이 참여하면서 규모가 커지자 센터는 올해부터 외부 도움을 받아 마을축제로 발전시키게 된 것이다.

어르신들도 아이들과 미니트리 만들며 웃음꽃

친구를 만나 신이 난 건 아이들만이 아니다. 행여나 하는 마음에 동행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어느 순간이 되자 한 가족인 듯 웃고 떠들며 보는 사람까지 미소를 머금게 한다. 아이들이 맺어준 인연 때문일까. 어른들은 동심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다.

아이와 함께 행사에 참가한 아이 엄마는 “일 나가는 어머니들이 많아 평소 얼굴 보기 쉽지 않죠. 학교나 센터 행사가 있어야 간신히 서로 안부라도 묻곤 해요. 아이들을 위한 축제에서 어른들이 더 즐거워하는 건 우리는 이런 기회가 아예 없으니까요. 애들 덕분에 오히려 저희가 즐겁다가는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집 이것이 지역복지의 시작이죠”

김지민 솔바람복지센터장

1998년에 설립된 솔바람복지센터는 2011년부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상주하는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해 3명. 그러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250명에 달한다. “직원들만으로 이용객들을 응대하기 힘들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사람의 향기가 솔솔 부는 솔바람복지센터를 만들기 위해 적지 않은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동안 작은 음악회, 작은 발표회로 진행되던 연말행사를 올해부터 미음축제로 격상시켜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더웠던 지난여름, 센터에 ‘모두의 쉼터’라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의외로 정말 많은 주민이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연말 행사를 이분들을 모시고 축제 형식으로 해보자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문제는 적지 않은 비용이었다. “다행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큰 걱정을 덜었지요. 덕분에 더욱 풍성해지고 알찬 축제가 됐답니다. 아이들이 즐거우면 집이 즐거워요. 이것이 지역복지 실현의 시작이죠.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과 미니트리를 만들고 있던 동네 시니어 모임 어르신 역시 비슷한 생각인 가보다. “이런 행사를 통해 동네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이제 길 가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요즘 친척이 무슨 소용이에요. 가까운 이웃이 더 낫지.”

어르신 말처럼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한다. 그러나 잘 아는 가까운 이웃 때문에 되려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센터는 마을축제가 이웃 간 공동체 의식을 높여 지역 내 안전에 대한 결핍과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라고 있다. ❀

1억 이상 기부하는 법인이 겨우 여덟 곳이지만 캠페인 그날이 오면 풀뿌리와 함께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며 광주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역경을 이겨내 온 광주.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배경에 맞춰 열심히 변화하며 노력하는 광주 사랑의열매의 새로운 도전을 만나보자.

문화와 인권의 도시이자, 호남경제권의 중심지인 광주광역시. 국내 6대 도시로 손꼽히는 대도시이지만, 도시 규모에 비해 지역 내 대기업과 공업 시설이 별로 없고, 다른 대도시에 비해 경제적 자립도가 낮다. 대도시임에도 일부는 도농복합지역에 속한다. 이러한 경제적 성장이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광주광역시의 모금은 매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3년 60억 4,700만 원이던 모금액이 2014년 64억 2,000만 원, 2015년 85억 3,700만 원, 2016년 95억 4,200만 원, 그리고 2017년 102억 5,8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 민간이 주도하고, 시민들이 합세해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

95개 동과 연계한 모금이 4년간 40억 원이 넘어

광주광역시 모금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광주시 전역에 튼튼하게 뿌리내린 풀뿌리 모금이다.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95개 동 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전개하는 착한가게 참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아나바다 장터기금 기탁, 환경미화원의 거리 청소를 통한 동전 모음, 경로당 어르신들의 용돈 나눔, 광주 택시의 사랑의열매 깃발 달기 캠페인 등 소액기부자들의 기부 동참의 열기가 뜨겁다.

2014년부터 79개 동과 연계한 모금 캠페인에서 지난해 말까지 모금된 금액은 총 40억 7,000여만 원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한 풀뿌리 모금에 대해 이성도 광주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정부 주도의 복지문제 해결 방식을 탈피하고 민간 주도적인 선진국형 복지문제 해결 패러다임을 도입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참여하는 지역 주민 모두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복지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겁니다. 착한가게, 착한가정 등 다양한 모금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기부자들이 보다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기부운동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박동영 광주 사랑의열매 모금사업팀 팀장은 연간 지역 내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기업이 삼성전자 광주공장, 기아자동차, 호반 등 대기업이 몇 곳 없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시민들의 풀뿌리 모금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2012년부터 12월 한 달 동안 광주 사랑의열매와 광주광역시,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가 함께 연합모금을 펼치는 활동도 모금활동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겨울에만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특별 모금 프로그램이에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4억 4,000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의 취약가구에 쌀과 연탄, 아동과 청소년 캠프 프로그램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아너 10명 가입 등 고액기부 유치에도 신경

기부 모금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풀뿌리 모금 확대와 함께 고액기부 확장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광주 사랑의열매는 전국 최초로 한 달에 10명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진기록을 세웠다. 기존 회원들의 회원 추천을 독려한 덕분이다. 이와 함께 광주지회는 완남 회원들에게는 동기부여를 통한 재기부 유도, 각 구별 1인 1아너 발굴 등을 통해 기부의 든든한 축을 만들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사회경제적 어려운 환경으로 법인모금에 한계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법인모금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주요 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1,000만 원 이상 기부 동참과 기업욕구를 반영한 테마별 모금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주)호반건설주택, 한국전력공사, 기아자동차, 대유그룹,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 광주은행, 그린알로에, 해양도시가스 등의 참여를 통해 2017년 법인 기부금이 2016년 대비 107.7% 증가한 48억 3,000만 원이라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복지현안 우선 지원 등 기민한 배분활동 호응도 높아

광주 사랑의열매는 광주광역시 관내 돌봄이웃 및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배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모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배분금액도 2016년 114억 원, 2017년 118억 원, 2018년 13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광주 사랑의열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 등의 교육사업, 소외영역의 사회복지 대상자 및 종사자들의 인권과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해 현장과 함께 고민하고 유관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배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 사랑의열매는 매년 지원되는 기본 사업 외에도 좀더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 지원 체계 강화, 지역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원하던 차량 지원 사업의 방식을 렌트 차량으로 전환한 사례다.

“지난 18년간 약 400여 대의 사랑의열매 차량 지원을 했습니다. 호응이 좋기는 했지만, 현장마다 필요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차종이 다르더군요. 렌트 차량의 연간 사업비 지원으로 방식을 바꾸고 난 뒤로 기관마다 원하는 차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차량 관리운영비 절감 효과도 상당합니다.”

배정봉 배분사업팀 팀장은 이와 함께 광주 사랑의열매가 최초로 시도한 복지현안 우선지원 사업도 큰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위기사항이나 긴급한 사회문제 및 사회복지 이슈 해결을 위한 민간복지 영역을 지원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복지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연중수시 공모 사업을 통해 갑작스러운 폭우를 동반한 낙뢰로 소방 설비나 전기시설이 망가지거나, 보수공사가 필요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승강기 및 소방 관련 설비 공사, 한여름의 지역아동센터 냉방기 지원같이 한시가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보다 빠르게 지원했다.

“지자체에서 긴급 예산을 마련해 지원한다고 해도 수혜자들이 받기까지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겪게 되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반면 복지현안 우선지원 사업은 보다 빠르게 지원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2회 총 1억 원을 지원한 복지현안 우선지원 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2019년에는 연 4회 총 2억 원으로 사업을 확대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사람이 나눔문화에 동참하는 것을 존재의 이유로 말하는 광주 사랑의열매. 그 뜨거운 열정으로 새롭게 주어진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해 본다. 



지난 9월 3일 진행된 광주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83호 회원 가입식을 마치고 김명군 (주)금호주택 대표(왼쪽)와 한상원 광주 사랑의열매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액다수기부 활성화 정착 광주시민들의 열정 덕분이죠”

지난해 광주 사랑의열매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풀뿌리 모금의 강화였다. 모금의 양과 질의 균형적인 성장을 목표로 했다. 전통적으로 광주 지역은 기업활동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지역을 대표할 만한 대기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 인기업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풀뿌리 기부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이러한 기부에 불리한 사회적 여건과 계속되는 경제 불황, 기부포비아에도 불구하고 광주 사랑의열매가 진행한 희망2018



나눔캠페인은 목표 대비 103.2%의 초과 달성을 이뤄냈다. 이에 이성도 사무처장은 광주시민들의 나눔에 대한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다.

“광주시민 모두가 함께 역경을 이겨내 온 공동체 의식과 광주정신을 발휘해 준 덕분입니다. 95개 동 사회보장협의체 및 통반장들로 구성된 희망지킴이 활동부터, 시민 개개인의 소액기부와 아너 소사이어티의 고액 기부, 법인 기부 동참 등 각계각층이 협력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도움받은 시민들의 감사 인사에 더욱 힘 솟아

도움을 받은 지역민들이 주는 감사의 인사도 광주 사랑의열매에 큰 힘이 된다.

“한번은 후두암으로 성대를 제거한 어르신이 방문하셨습니다. 진동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원통형 기계를 목에 대고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어떤 점들이 힘들었는지, 병원비로 고생할 때 생계비 지원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를요. 다스베이어 같은 기계음이었지만, 그 어떤 목소리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호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꼬옥 쥐어주시는 녹녹한 사탕도, 얼굴 가득 장난기와 웃음을 머금은 아이들의 감사 인사도, 이웃을 위해 나누었던 마음들이 되돌아와 사랑의열매 직원들의 마음을 채우고, 힘이 되어주고 있다.

“새해에는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의열매가 믿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는 이야기도요. 기부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2019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빅데이터 분석 ‘정보의 바다’ 덕에 나눔이 확산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력 산업이 될 산업으로 빅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빅데이터 분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분야다. 빅데이터를 사회복지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때다.

전문가들은 빅데이터를 정보시대의 ‘원유’라고 표현한다. 데이터가 마치 산업혁명 시기의 석탄처럼 IT와 스마트혁명 시기에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런 빅데이터는 실제 우리의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 알람서비스에 빅데이터 활용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방 시스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 알람서비스에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감기, 눈병, 피부염, 식중독 등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데이터 및 의료 당국에서

보유한 관련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 뉴스, SNS, 인터넷 검색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질병의 종류와 발생지역, 확산 속도 등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

교통사고 예방에도 빅데이터가 큰 역할을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약 8,000개 구간 중 위험 운전이 잦은 곳을 분석했다. 운행기록계 정보 및 사고 기록 등 142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약 1만 건의 위험 운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21개의 위험 징후 구간을 찾아내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교통 인프라를 개선했다. 그 결과 위험 운전 횟수가 2015년 15만여 건에서 이듬해 9만 건으로 약 40% 줄었다.

빅데이터는 미래 사회를 예측해 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적 이슈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육대란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 확립과 고령인구 지원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삼성카드는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빅데이터 활용해 무료 홍보 소셜네트워크 확산에 따른 시민 참여 확대와 백세시대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 의료 확대,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플랫폼 구축 등 사회 전반의 심층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빅데이터가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는 사례도 있다. 삼성카드에서 사랑의열매의 모금 프로그램인 착한가게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무료로 홍보해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삼성카드는 지난 8월 23일 사랑의열매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 'LINK 비즈파트너'를 통해 착한가게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가입 업소는 삼성카드에서 운영하는 '링크비즈(Link Biz)'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삼성카드 일반 가맹점주들은 이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지만 착한가게는 삼성카드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해 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장이용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선별적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케팅할 때보다 효율성이 높고 별도의 홍보비용도 들지 않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삼성카드 일반 가맹점주들은 이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지만 착한가게는 삼성카드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해 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장이용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선별적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케팅할 때보다 효율성이 높고 별도의 홍보비용도 들지 않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부 및 사회이슈 트렌드 분석... 새로운 기부문화 창출

빅데이터는 기부 및 사회이슈 트렌드를 분석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사랑의열매 나눔연구소는 2017년 한 해 동안의 기부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주요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하는 '기부 및 사회이슈 트렌드 분석' 연구를 진행했었다. 분석에 활용된 빅데이터는 언론 기사였다. 사회이슈와 기부·나눔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10만 부 이상 발행하는 언론사의 기사 데이터에서 제목과 내용에 '기부' '모금' '사회'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를 추출했다. 그 결과 기부 혁신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기부경향, 사회적 투자 형식의 기부문화 확산, 그리고 기부의 주체 및 대상으로 청년이 부각됐다. 이러한 것은 청년실업과 경제산업적 혁신의 필요성이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 투자 형식의 기부문화가 보다 확산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

빅데이터는 '어딘가 쌓여 있는 자료'가 아니라 정확하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자료'다. 국내 모금기관의 대표인 사랑의열매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부 트렌드와 나눔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흐름을 파악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얼굴 없는 천사는 누구실까? 올해도 '사랑의우체통' 다녀가



사랑의열매의 서울 광화문광장 사랑의온도탑에 익명의 기부자가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갔다. 5만 원권 지폐 100장이 담긴 흰 편지봉투다. 봉투는 사랑의온도탑 측면에 세워진 '사랑의우체통' 안에서 지난 12월 21일 오후 사랑의열매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봉투에는 아무런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고, 편지나 쪽지 등도 들어 있지 않았다.

'사랑의우체통'은 사랑의열매가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캠페인 기간 동안 사랑의온도탑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설치한 것이다. 비치된 엽서에 응원메시지를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사랑의열매 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현장 이웃돕기 성금 모금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기부금은 이날 오후 나눔메시지 엽서를 수거하던 중 발견됐다.

사랑의열매가 매년 진행하는 연말연시 모금캠페인 기간 중 사랑의온도탑 시설에 기부금 봉투가 놓인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2014년 12월 1,000만 원, 2016년 1월 300만 원, 2016년 12월 500만 원, 2017년 12월 500만 원의 익명 기부금이 발견됐다.



신구덴탈, 송년 번개마켓 수익금 전달 매년 온라인 쇼핑물 통해 기금 마련

신구덴탈(주)은 송년 번개마켓의 수익금 528만 3,000원을 지난 12월 21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날 사랑의열매 회관을 찾은 이용림 신구덴탈 대표는 김호진 사랑의열매 모금사업본부장을 만나 수익금을 전달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송년 번개마켓은 평소 가격 때문에 구매하기 망설였던 상품과 전시나 세미나 때 사용했던 장비들을 저렴하게 판매해 인기를 얻고 있다. 이용림 신구덴탈 대표는 "연말이면 번개마켓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며 "내년에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토박스코리아, 아동화 3만 3,000컬레 전달 사랑의열매 통해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지원 예정

토박스코리아는 지난 11월 30일 경기도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한국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소속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해 아동화 3만 1,000컬레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운동화는 사랑의열매를 통해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토박스코리아는 앞서 11월 22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를 통해 2,000컬레를 지원하는 등 올 한해에만 5만 5,000컬레를 기부했다. 이선근 대표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나눔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꿈나래 통장 사업 5,000만 원 성금

고려아연(주)(회장 최창근)은 지난 12월 11일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꿈나래 통장 사업'을 위한 성금 5,000만 원을 서울 사랑의열매(회장 윤영석)에 기부했다. 꿈나래 통장 사업은 만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교육비 등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려아연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000만 원씩, 2017년과 올해는 각각 5,000만 원씩을 기부해 꿈나래 통장 가입자의 지속적인 저축을 돕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웃사랑 성금 전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12월 13일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랑의열매를 전달받은 조희연 교육감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선사하기 위해 이웃사랑 성금을 모금함에 쾌척했다. 뒤이어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명사들에게 사랑의열매를 달아주는 '나눔명사 열매달기 행사'에도 참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나눔을 상징하는 사랑의열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량 21대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에 지원

경남 사랑의열매(회장 한철수)는 지난 12월 12일 창원문성대학 주차장에서 2018년 기획사업 '사랑의열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경남 사랑의열매는 지난 2003년부터 차량 지원 사업을 매년 공고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 차량은 승합차 17대, 경차 4대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서류,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됐다. 이번에 전달되는 차량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복지대상자의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세플러코리아, 16년째 이어온 따뜻한 나눔

세플러코리아(대표 이병찬)는 지난 12월 17일 창원시 저소득가정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4,800만 원을 경남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세플러코리아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로 16년째 저소득가정 학생들을 위한 희망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회복지기관 가구 지원, 취약계층 집수리 및 물품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성금은 창원시 관내 7개 학교로부터 장학생을 추천받아 총 60명의 저소득가정 학생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충북 착한가정 100호 탄생

충북 사랑의열매(회장 이명식)의 착한가정 캠페인에서 100호의 주인공이 탄생했다. 청주 미평동에 거주하고 있는 재운이네 가족으로 지난 11월 29일 충북 착한가정 100호로 가입했다. 결혼 후 7년 만인 올해 2월 재운이를 품에 안은 아빠 김광섭씨와 엄마 이주호씨는 그 감사함을 이웃과 나누고자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 유치원 교사인 두 부부는 착한가정 100호 가입과 함께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추가로 100만 원을 기탁했다.



청주시의사회 1,500만 원 성금 기탁

청주시의사회(회장 박홍서)는 지난 12월 3일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5회 송년자선음악회에서 충북 사랑의열매에 성금 1,5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청주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성이 모여 조성된 것으로, 청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가구에 지원된다. 박홍서 회장은 “회원들의 참여로 15년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에스동서, 이웃사랑 성금 2억 원 기부

아이에스동서(주)(회장 권혁운)는 지난 11월 30일 대구시장실에서 대구 사랑의열매(회장 직무대행 김수학)에 대구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2억 원을 전달하며 '희망2019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성금 2억 원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이웃들에게 전달돼, 노후된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일 예정이다. 권혁운 회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도움의 손길도 줄어들는데, 그럴수록 지역사회 기부문화 활성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동행과 채움' 지원 사업 5억여 원 91개소에 전달

대구 사랑의열매는 지난 12월 7일 대구 남구에 위치한 남대영기념관 대강홀에서 배분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기획사업 동행과 채움 전달식'을 진행했다. 대구시민 및 기업들의 성금으로 준비된 '2018년 기획사업 동행과 채움'은 여행과 나들이 등 다양한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며, 컴퓨터와 냉난방기 등 설비 지원을 통해 근무자 및 생활자 복지육구 해소를 추구하는 지원사업이다.



인천벤처기업협회, 나눔리더 25명 단체 가입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회장 서동만) 회원 25명이 지난 12월 11일 나눔리더에 단체 가입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을 중심으로 기부 참여를 독려했고, 이에 회원 25명이 2,5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나눔리더로 동시 가입했다. 서동만 회장은 “장기 불황에 따라 벤처기업들도 힘든 상황이지만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가까운 회원사 대표들부터 참여를 제안했다”며 “흔쾌히 동참한 25명의 회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희망2019나눔캠페인 10억 원 전달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지난 12월 17일 길병원 사거리 온도탑 앞에서 인천 사랑의열매(회장 정명환)에 성금 10억 원을 전달했다. 정일영 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공항이 되려면 지역밀착형 사회공헌이 중요하다. 공항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사랑을 소외이웃 지원을 통해 보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금은 인천 지역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 사업과 저소득층 대상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 다양한 곳에 쓰일 예정이다.



대유그룹, 희망2019나눔캠페인 3억 기탁

대유그룹(회장 박영우)은 지난 12월 17일 KBC광주방송 대표이사실에서 광주 사랑의열매(회장 한상원)에 희망2019나눔캠페인 성금 3억 505만 5,000원을 기탁했다. 박영우 대유그룹 회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재 5,000만 원을 기부했고, 계열사인 스마트저축은행에서 1억 원, 대유에이텍이 5,000만 원, 대유에이텍 임직원 일동 505만 5,000원, 대우전자와 대유위니아가 각각 5,000만 원 상당의 현물 등 총 3억 505만 5,000원에 달하는 기부금과 물품을 기탁했다.



2019캠페인 이후 광주 나눔리더 7명 동시 가입

희망2019나눔캠페인 출범 후 광주 1~7호 나눔리더가 탄생했다. 광주 사랑의열매는 지난 12월 12일 7명의 나눔리더 회원을 맞았다. 나눔리더로 동참한 7명은 1호 이계상 광주MBC 기자, 2호 노한진 다사랑치과 원장, 3호 이광훈 인하루치과 원장, 4호 정병초 미르치과 원장, 5호 홍성수 상무치과 원장, 6호 전승범 전승범치과 원장, 7호 박종관 현대자동차서부서비스 대표다.

전북



2018 전북 아너 소사이어티 총회 개최

전북 사랑의열매(회장 김동수)는 지난 12월 11일 '2018 전북 아너 소사이어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아너 소사이어티 신규 회원 소개, 2018년 전북 아너 소사이어티 현황 보고, 나눔국민대상 시상, 신규 아너 대표 선출, 나눔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전북 지역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크리스마스 소원 들어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20명의 도내 저소득층 초등학생에게 보낼 크리스마스 카드를 아너 회원들이 직접 작성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정성산부인과, 전북 착한가게 1,700호 가입

전주시 우아동에 위치한 정성산부인과(원장 안진섭)는 지난 12월 5일 전북 지역 착한가게 1,700호점으로 가입했다. 착한가게 1,700호점 탄생은 지난 2017년 1,000호점, 올해 8월 1,600호를 돌파한 이후 4개월 만이다. 안진섭 원장은 "따뜻한 우리 동네를 위해 작은 용기를 가지고 내디딘 첫걸음이 전라북도 1,700번째 착한가게라는 큰 책임감이 됐다"면서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 더 따뜻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



지니뮤직, 청각장애인 음악 교육 지원 위해 1,100만 원 전달

지니뮤직(대표 김훈배)은 지난 12월 15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연회장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악 교육 지원금 1,100만 원을 경기 사랑의열매(회장 이순선)에 전달했다. 지니뮤직과 kt wiz는 2018년 한 시즌 동안 kt wiz 홈구장 내 외야 좌측에 지니뮤직 홀린존을 조성, kt wiz 소속 선수가 홈런을 칠 경우 홈런 1개당 사회공헌기금 50만 원을 적립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시즌 동안 22개의 공이 지니존을 넘었고 이에 따라 1,100만 원의 기금이 마련됐다.



113인의 파주 CEO, 성금 1억 2,587만 원 전달

파주상공회의소(회장 권인욱)는 지난 12월 17일 경기 사랑의열매에 이웃돕기 성금 1억 2,587만 원을 기부했다. 113개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파주상공회의소는 이외에도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해 저소득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명절용품 나누기, 여름용품, 방한용품 나누기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에 연중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종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 한자리에

세종 사랑의열매(회장 홍영섭)는 지난 12월 17일 '세종 아너 소사이어터 클럽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형권 회원(12호), 임영이 회원(13호)의 아너 소사이어터 인증패 전달식이 열렸으며, 회원 간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회원들은 세종시 나눔문화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았으며, 사회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하자는 다짐의 시간을 만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앞으로도 아너 회원들 간 정기 모임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공주축산업협동조합,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기탁

세종공주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은승)은 지난 12월 19일 세종 시청 접견실에서 이은승 조합장, 이춘희 세종시장, 홍영섭 세종 사랑의열매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19나눔캠페인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은승 조합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사랑의온도가 더디게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랑의온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원들이 사랑을 모아 기탁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 이웃과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 제가 더 감사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밴드 '야생버섯과 산삼', 소아암 3명에 1,147만 원

네이버 밴드 '야생버섯과 산삼(회장 최원식)'은 지난 11월 15일 소아암 환자 3명을 위해 써달라며 1,147만 4,000원을 강원 사랑의열매(회장 한만우)에 기탁했다. 야생버섯과 산삼은 산행과 약초 채취 관련 동호회로, 동호회 모임 서비스인 네이버 밴드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원식 회장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대가의 일부를 소아암 어린이에게 전달하고 싶었다"며 "회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홍천의 용감한 소방관들, 의인상금 4,000만 원 기부

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 소방관들이 지난 11월 23일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119행복기금에 의인상 상금 4,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는 지난 10월 28일 홍천읍의 한 빌라 4층 화재 현장에서 안전모가 녹아내릴 정도로 뜨거운 불길을 뚫고, 3세 아이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LG 복지재단으로부터 받은 상금 6,000만 원 중 일부를 기탁한 것이다. 홍천소방서 소방관들은 "기부금이 화재 피해로 실의에 빠진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 우수정책 포상금 전달

울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18 아동복지유공자 시상식'에서 '아동정책평가'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1,000만 원을 지난 12월 13일 울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시는 아동정책 5개 분야, 104개 과제에서 기획 및 추진 방식의 적절성, 성과 달성도 등에서 탁월한 행정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복금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은 "전달된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소중히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2018 송년의 밤 행사

울산 사랑의열매(회장 한시준)는 지난 12월 13일 동천컨벤션 초례청에서 2018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1년간 울산의 나눔문화를 이끈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더 발전된 울산의 나눔문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철호 울산시장, 박봉준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시준 회장은 "울산의 고액 기부문화를 견인하기까지 회원들의 애정과 관심이 큰 힘이 됐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부여군의회 의원 전원, 나눔리더 단체가입

충남 사랑의열매(회장 이관형)는 지난 12월 13일 부여군 순회모금행사에서 부여군의회 의원 11명 전원 및 지역 내 개인기부자 5명의 나눔리더 단체 가입식과 나눔리더스클럽 가입식을 진행했다.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나눔리더에 가입한 사례는 부여군의회가 처음이다. 이관형 회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나눔에 앞장서 주신 나눔리더분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나눔리더 가입으로 부여군 관내를 넘어 충남 전 지역에 나눔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회복지시설 4곳에 복지 차량 지원

현대자동차아산공장(공장장 정현철)과 충남 사랑의열매는 지난 12월 5일 아산시를 방문해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복지 차량 4대를 전달했다. 후원 차량은 1억 원 상당의 스타렉스 4대로,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산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국제장애인문화교류 충남협회, 충남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에 지원됐다. 정현철 공장장은 "복지시설의 차량이 많아 업무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희망의 복지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 나눔리더 SALON 음악회 열려

부산 사랑의열매(회장 신정택)는 지난 11월 23일 중구 백구당 2층 SPACE, M 갤러리에서 부산 나눔리더/리더스클럽의 SALON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테너 이지윤, 바이올린 연주자 수순, 색소폰 연주자 대니 정이 재능기부로 참여했으며, 영화배우이자 부산 나눔리더인 백봉기씨와 박효준씨가 사회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배우 박효준씨는 “동료 배우의 뒤를 이어 영화배우 2호로 가입,함께 나눔을 실천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2018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부산 사랑의열매는 지난 11월 30일 영도 목장원 4층 연회장에서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을 개최했다. 부산 아너의 지난 10년간 성장 과정과 활동을 통해 부산 지역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2019년 활동 계획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의견이 오갔다. 100호 아너 신정택 부산 사랑의열매 회장과 133호 아너 박기대 해물왕창갈국수 대표가 올해의 아너 상을 수상했다.



돈사돈 가족 일동, 십시일반 정성 모아 전달

돈사돈(대표 양정기)은 지난 12월 10일 성금 1,680만 원을 제주 사랑의열매(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추운 겨울을 맞아 제주 지역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양정기 돈사돈 대표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20여 곳의 돈사돈 대표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양정기 대표는 “전국에 있는 돈사돈 가족들과 올해도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정성을 함께 모았다”며 “앞으로도 돈사돈 가족들과 나눔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씨월드고속훼리, 이웃사랑 성금 3,000만 원

씨월드고속훼리(주)(회장 이혁영)는 지난 12월 5일 제주 사랑의열매 사무실을 방문해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며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혁영 회장은 “연말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는 마음에 공개 기부를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다양한 영역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금은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전



한온시스템, 마을가꾸기 사업 지원

(주)한온시스템(대표 이인영)은 지난 11월 2일 대전 사랑의열매(회장 안기호)에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대덕동 일대 마을가꾸기 사업을 위한 것으로, 대전시자원봉사지원센터로 지원됐다. 이후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화단을 조성하고 벽화를 그리는 등 환경 정화에 힘을 모았다. 한온시스템은 해마다 난방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 봉사활동, 저소득층 아동의 교복비 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전사랑통장 기부금 전달

KEB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대표 민인홍)은 지난 12월 3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사랑통장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KEB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은 사회공헌사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하는 대전사랑통장' 적금 상품의 지난해 평잔 금액의 0.1%인 7,100만 원을 기부금으로 전달했다. 민인홍 대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지역민 모두가 하나 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남



대한건설협회전라남도회, 이웃사랑 성금 5,000만 원 기탁

대한건설협회전라남도회(회장 김영구)는 지난 12월 17일 연말연시 이웃사랑 성금 5,000만 원을 전남 사랑의열매(회장 허정)에 기탁했다. 김영구 회장은 "도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용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협회에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성금은 도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8개소의 시설 생활자와 이용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쓰일 예정이다.



전라남도치과의사회, 1,000만 원 기탁

전라남도치과의사회(회장 홍국선)는 지난 12월 12일 연말연시 이웃사랑 성금 1,000만 원을 전남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전라남도 치과의사회는 지난 7월 폐금속 기부로 모인 성금 1,150만 원을 전남 영암소림학교, 목포청소년 쉼터, 영암 영애원, 나주계산원, 화순 자애원 사회복지시설단체로 기탁한 바 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도 전남 도내 저소득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비로 사용될 계획이다.



월동 난방비·생계비 13억 5,000만 원 지원

경북 사랑의열매(회장 신현수)는 지난 12월 18일 영주시청에서 13억 5,000만 원의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성금은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계층 9,800가구의 월동 난방비와 생계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모두가 손수 땀 흘려 포장한 5,000만 원 상당의 '산타의 선물' 1,500상자는 도내 지역아동센터 50여 개소를 통해 사각지대 아동 1,500명에게 전달됐다.



예천미래농업청년경영인회, 농·축산물 판매수익 기부

예천미래농업청년경영인회는 지난 12월 3일 예천군청을 방문해 농·축산물 판매수익 100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성금은 예천 청년 농부들이 직접 수확하고 기른 농·축산물을 지난 11월 예천군 농산물 축제에서 판매해 번 수익금으로 조성됐다. 이송희 회장은 "수익금을 좀 더 뜻깊고 의미 있게 쓰자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기부를 실천하게 됐다"며 "우리 예천 소외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기부
#9004
(한 통에 2천원)

ARS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천원)

온라인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기부
예금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기념일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여는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고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는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진정한 나눔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있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국내 최대의 기부자 클럽입니다.



홍정호 전북현대FC 선수, 아너 회원 가입 축구선수로는 홍명보·박지성에 이어 4번째

홍정호 프로축구 전북현대FC 선수가 지난 12월 4일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회원에 가입했다. 홍 선수의 아너 가입은 축구선수로는 2009년에 가입한 홍명보 전 감독과 2014년 가입한 박지성 선수 등에 이어 4호 회원이다. 홍 선수가 적을 둔 제주 지역에서는 첫 스포츠인 아너다. 홍정호 선수는 가입식에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며 “항상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오다 우연한 기회에 아너 소사이어티를 알게 되면서 가입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서울 246호 정원석 부국증권 MS센터 팀장



“나눔이란 단순한 기부가 아닌 투자가 되어야 한다.”

서울 245호 전현무 방송인



“나눔은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서울 247호 김영기 전 광명소하중 교장



“나눔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서울 248호 남상욱 FS한울타리 대표



“나눔은 함께하는 것이다.”

서울 249호 윤영오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 원장



“나눔이란 단순하게 이웃과 공동체를 돕는 것으로 보이지만 크게는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250호 고영균 세진계기(주) 대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삶이고 세상이다’라는 생각으로 나눔을 실천합니다.”

충남 82호

유병기 부여군협의회 회장



“여유가 있을 때보다 추운 겨울 모두가 부족함을 느낄 때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더 값진 거라고 생각해서 아내 소사이 어티에 가입하게 되었다.”

충남 83호

정범수 마음애병원 원장



“어려운 이웃들이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 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더불어 충남 지역 에 나눔문화가 널리 확산됐 으면 좋겠다.”

충남 84호

정석 (주)정석 대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여 나눔활동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나눔으로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광주 86호

나대웅 상상개발(주) 대표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아직 이웃사랑 실천에 용기를 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나눔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경기 195호

이순선 성창베네페나 대표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다. 나눔은 가장 감동적인 예술이다. 나, 가족,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더욱 부지런히 뛰겠다.”

경남 109호

강선이 여사



“베풀머 살아야 한다.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한다.”

인천 127호

이근아 이규원 치과의원 원장



“아버지와 함께 부녀 아너로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행복하고 영광이다.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

제주 95호

황금신 회성종합건설(주) 대표



“기부는 자연스런 삶이다.”

전남 79호

임흥식 (주)삼성인베스트먼트 대표



“어렵게 컸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분을 보면 지나칠 수 없어 기부를 시작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와의 약속을 지켜가겠다.”

부산 151호

변희자 러닝플러스(주) 대표



“우리의 나눔이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밝힐 수 있으리라 믿는다. 선배 아너들이 걸 어간 나눔의 길을 따라 나누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

부산 152호

박종수 삼진어묵(주) 회장



“삼진어묵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성장할 수 있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들과 더 많이 나누며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

중앙회 김지만 제쿠먼인베스트먼트(유) 대표, 임연 오성자동차공업사 대표, 김재학 하이젠모터(주) 대표, 이성구 (주)고파스방수 회장, 김של현 연예인

서울 사랑의열매故 김상욱 님

부산 사랑의열매 하상훈 부산분병원 대표원장, 박병대 송월(주) 회장, 익명

인천 사랑의열매 전경숙 님

전남 사랑의열매 하고은 님, 문경환 강진신협 이사장

전북 사랑의열매 함경식 (주)대운산업개발 대표

경북 사랑의열매 권상학 (주)현대조경 대표, 박남서 대신환경 대표, 문영욱 (주)대육케스트 대표이사, 박지숙 (농)그린피스학암(주) 대표, 백경수 님

제주 사랑의열매 양정순 (주)광덕기업 대표

세종 사랑의열매 임영이 세종시무형문화재 3호

대구 사랑의열매 윤봉호 의료법인 이래의료재단 이사장, 故 구자욱 님

울산 사랑의열매 강진구 님

충북 사랑의열매 김지용 SY에너지 대표, 손위양 님, 박광민 주식회사 세일하이텍 대표이사



〈사랑의열매〉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난호 독자 의견

희망2019나눔캠페인이 시작됐
페인이 시작됐
군요. 홍보대사
인 이연복 세프
의 말처럼 우리
나라의 나눔은
위축되지 않
을 것이며, 다 같이 힘을 모아 나눔을 실천
하면 추운 겨울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눔으로 행복한 세상' 슬로건처럼 목표한 4,105억
원을 넘으면 좋겠어요.

성원중 · 서울시 노원구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73일간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경기불황 등의 여
파로 기부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줄었다고 합니
다. 저부터 전화모금, 문자기부에 동참하려고요.
사랑의 온도탑이 100℃로 가득 찼으면 하는 바
람을 가져봅니다.

김건영 · 경남 김해시

이번 호 《사랑의열매》가 올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책이라 생각하니 아쉬워
책장 하나하나 소중히 넘
겨보게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책 속 주인공들
이 나눔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들을 통해 나눔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한석 · 경기도 의정부시



참여방법

- * 이메일(E-mail: cckpr@chest.or.kr)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읽은 후 소감이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 * 나눔에 대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경험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가족, 친구 등에게 선물한 인증 사진을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 기사 및 편집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 * 보내실 때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독자 참여 사은품

독자 의견(3명)에 선정된 분에게는 내용 소개와 함께 문화상품권
(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텀블러



우산



무릎담요



에코백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매거진은 '사랑의열매' PC·
모바일 페이지에서 e-book(전자책)과
PDF 파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에 접속한 후 하단의 '홍보자료' 배너를 클
릭하면 해당 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www.chest.or.kr

아름다운 기업-금호아시아나

불꽃같은 정열의 도시

바르셀로나!

아시아나항공 주 4회 운항 ✈


ASIANA AIRLINES ⁷

A STAR ALLIANCE MEMBER 

나눔이 낳은 마음의 편지 나눔이 나눔을 낳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혼자 외롭게 공부했던 한 학생은 어느 날 작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정태 아너가 이끄는 오정동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내온 장학금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꾸준한 지원을 통해 아이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학원에 등록해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은 영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내온 편지에는 아이의 꿈이 적혀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따뜻한 나눔을 자신처럼 불우한 환경의 학생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작은 나눔이 다시 나눔을 낳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I wish you a life full of smiles and happiness.

To. 오정동 복지 협의회 위원장님께
 안녕하세요 ~
 저는 덕산고등학교 3학년 [redacted]라고 합니다.
 저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
 하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때
 저는 무작정 외우기만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 포기하고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에게 장학금이 주어
 학원에 다닐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버지께 알쏭드리지 못했었는데 저는 제일 부족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제일 부족한
 영어에 대해 공부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영어는 항상 낮은 점수를 받
 고등학교를 졸업해서도 3등급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정 동 복지 협의회 위
 어 정 동